

전국 최고 IT / 향만물류 교육 '동명대학교'

동명대학교 입학홍보처

부산 남구 용당동 동명정보대학교가 2006 학년도 일반대학 '동명대학교'로 거듭 태어나 IT 및 향만물류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더욱 다지게 된다.

동명정보대학교(총장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, 1996년 개교, 4년제 산업대학) 및 인접한 동명대학(학장 박용수, 1979년 개교 전문대학)은 통합 및 새 일반대학의 새 교명을 최근 '동명대학교(東明大學校)'로 확정했다.

최근에는 '글로벌 IT 브레인'을 새 동명대학교의 메인 슬로건으로 결정하고, 대학의 심벌 및 로고 타입 제작 등 기초 UI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면서, 전방위 홍보를 점차 본격화하고 있다.

또한 2006년 3월 동일 권역 동일 재단 산하 4년제 산업대학-전문대학 간 '통합 및 일반대학 전환'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창 추진중인 것이다.

■ 2006년 산업대서 '일반대'로 업그레이드

새로운 '동명대학교'의 2006학년도 신입생

모집은 6개 단과대학(33개 학과)-1개 학부(2개 전공) 체제로 세부적으로는 ▲정보통신대학(7개 학과) ▲향만물류학부(2개 전공) ▲공과대학(7개 학과) ▲경영대학(6개 학과) ▲사회과학대학(5개 학과) ▲디자인대학(5개 학과) ▲건축대학(3개 학과) 등으로 이루어진다.

'동명정보대학교'와 '동명대학'이 각각 10년 또는 30년 가까이 경쟁력을 쌓아온 'IT' 또는 '향만물류' 분야를 더욱 업그레이드하였다. 지난 수년간 게임공학과 정보보호학과 등 첨단 학과를 잇달아 신설해 전국적으로 주목 받은 데 이어, 또다시 의학과 공학 학제간/융합 학문 '의용공학과'와 같은 최첨단학과들을 추가 신설하기도 했다. 총 정원은 학부과정 2,240명, 대학원과정 150명(석사 100명, 박사 50명).

■ 전 학과에 'IT기반교육' & 멘토링시스템

일반대학으로의 실질적 업그레이드 이후 발전 계획의 핵심은 ▲ 전국 최초 IT특성화 4년



동명대학교 전경 ▲

제 대학인 '동명정보대학교'의 강점인 IT기술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시에 ▲이를 '동명대학'의 강점인 향만물류 등 비(非)IT 관련학과에까지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▲ '세계적 수준에 이룬 IT를 기반으로 한 교육'이 '모든 학과'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. 중장기적으로 ▲ 'IT강국 코리아' 및 '향만물류 중심 도시 부산'을 이끄는 주역 배출을 주도하며 ▲ 2010년을 전후하여 '부산권 5위 대학' & '아시아권 IT/향만물류 초일류 대학' '전국 10위권 대학'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.

전통적으로 IT/과학-취업-산학협력 등 3대 분야에 '트리플(3) 강점'을 보유해왔던 데다 최근 수년간 연이어 산학협력 중심 대학사업 향만물류재정지원 대학사업 누리(NURI) 사업 등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에 선정된 양 대학

의 통합 및 일반대학 전환은 이 같은 '제2의 도약'을 향해 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. 특히, 입학-재학-취업 일체를 교수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'멘토링(Mentoring, 도제 교육) 시스템' 실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.

■ 취업률 전국 제일 & 재무 건전도 전국10위

동명정보대학교는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 153곳 가운데 재무 부문 10위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평가받았고, 교육인적자원부 집계 '정규직' 취업률 전국 13위(B그룹-졸업생 1,000명 이상 2,000명 미만)를 기록했다고 최근 각 언론에 보도됐다. 동명대학은 전국의 전문대학 가운데 '정규직' 취업률 전국 1위(B그룹-졸업생 1,000명 이상 2,000명 미

만)를 기록한 것으로 같은 시기에 보도됐다.

이 같은 저력을 바탕으로, 대학에서 세계적인 과학/IT 명사 초청 릴레이 강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등 지역민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. 대학 홈페이지(www.tit.ac.kr)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이 '열린 강연'에는 매 강연장 현장에 매번 500여 명의 청중이 몰려드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.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-조현정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-안철수 안철수연구소 회장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사들의 강연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.

■ 변리사급 아이디어맨 사업가 등 속속 배출

재학시절 ▲세계적인 PDA 기업과의 상표 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낸 '변리사 이상의 실력자' (김사현) ▲휴대용 컨테이너 크레인 시

물레이터 특허를 따면서 판로개척까지 한 '아이디어맨' (조성문) ▲실생활에서 얻는 튀는 생각을 실용신안 등 각종 지적재산권화한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사업가로 변신한 '벤처기업가' (김화진) 등을 잇따라 배출하였다. 또한 관광개발동아리 TIT P&D(지도교수 나운중) 회원 학생들은 최근 전국의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부 주최 '국가 다기능어항 개발' 공모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상(우수상)을 수상하는 등 지난 1년여간 무려 20개 가까운 각종 전국규모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기도 하다.

이처럼 30년 가까이 축적해온 IT기술력과 창의력 및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동명대학교가 일반대학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IT-항만물류 분야에서 전국 10위권 이내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. 